



# 12년 전 '99승' 발목 잡은 키움 한화 류현진, 이번엔 승리 할까

12년의 세월을 건너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이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다시 한 번 '99승'에 도전한다.

류현진은 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벌어지는 키움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당초 선발 로테이션상으로 류현진은 2~4일 대전 구장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 3연전 마지막 날 출전해야 했다. 하지만 비로

23일 LG 트윈스전에서 3%이닝 6피안타 3볼넷 5실점 2자책점에 그쳐 패전을 떠안았다. 29일 KT 위즈를 상대로는 6이닝 8피안타 9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하고도 승패 없이 물러났다.

점차 페이스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키움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노크한다.

키움은 류현진에게 진한 아쉬움을 남긴 팀

다. 한화 타선이 1회말 1점을 먼저 뽑은 가운데 류현진은 6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1점 차로 앞선 7회 1사 후 '동갑내기 절친' 강정호에게 우월 솔로포를 얻어 맞았다.

등점을 허용한 류현진은 연장 10회까지 추가 실점 없이 더 버티며 승리에 대한 의욕을 꺾지 않았다. 그러나 한화 타자들은 더 이상 점수를 얻어내지 못했고,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결국 류현진은 '99승'째를 손에 넣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12년 만에 다시 마주한 키움을 상대로 또 다시 99승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류현진이 고척돔에 마운드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척돔은 류현진이 미국에서 뛰고 있던 2015년 말 개장했다.

12년 만에 만나는 키움 타선도 확 바뀌었다. 류현진의 '고별전'에 출전했던 키움 타자들은 모두 은퇴했거나 팀을 옮겼다.

이슬비기자

## 우천 취소로 등판 밀려...6일 쉬고 5일 고척 키움전 출격

## 미국 진출 전 넥센전서 10이닝 1실점 하고도 승리 실패

인해 3일 경기가 취소되면서 선발 일정이 하루 밀렸다. 3일 선발 투수로 예정됐던 문동주가 4일 경기에 나서고, 류현진이 키움과 주말 3연전 첫 날인 5일 마운드에 오른다.

11년 간의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온 류현진은 아직 복귀 첫 승을 따내지 못했다.

정규시즌 개막전이자 복귀전이던 지난달

이다.

류현진은 2012년 10월 4일 대전 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경기에 등판했다. 한화의 시즌 마지막 경기이자 미국 진출이 예정돼 있던 류현진의 '고별전'이었다.

이전까지 KBO리그 통산 98승을 기록 중이던 류현진은 이날 승리해 통산 승수를 자신의 등번호와 같은 '99'로 맞추려 이를 악물었

## 'EPL 토트넘 400경기 출전' 손흥민

## "특별한 이정표...런던은 제2의 고향"

토트넘 동료 데이비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항상 출선수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홉스퍼 소속으로 400경기를 뒀 '캡틴' 손흥민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손흥민은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클럽에서 400번을 출전했다는 것은 특별한 이정표다. 나와 가족에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웨스트햄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기쁨과 뿌듯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지난 3일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23~2024시즌 EPL 31라운드 원정 경기(1-1 무)에서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뛰었다.

2015년 입단한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뒀 400번째 경기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400경기 이상 출전 기록을 보유한 선수는 손흥민 이전에 13명밖에 없었다. 비유럽 출신 선수로는 손흥민이 최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2021~2022시즌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23골)에 올랐다. 토트넘에서 400경기 동안 160골을 넣었다. 구단 통산 득점 5위다.



손흥민의 400경기 출전을 축하한 토트넘 구단 (사진 = 토트넘 SNS 캡처)

또 이번 시즌에는 토트넘 주장 완장을 차고 팀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 연고지인) 런던을 제2의 고향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 '포수 강백호' 나쁘지 않은데?...벌써 두 번째 마스크

## 서울고 시절 포수와 투수로 뛰어

KT 위즈 강백호(25)의 '포수 전향'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강백호는 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전에서 올 시즌 두 번째로 포수 출장을 했다.

이날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한 그는 팀이 1-5로 끌려가던 8회초 시작과 함께 포수 마스크를 썼다. 구원 투수 유규민과 8회를 실점 없이 막고, 9회는 투수 이선우와 호흡을 맞춰 삼자범퇴로 끝냈다.

지난달 31일 한화 이글스전에서 강백호는 포수로 깜짝 등장했다. KT는 팀이 1-12로 지고 있던 8회말 지명타자였던 강백호에게 안방을 맡겼다. 강백호는 별 다른 문제없이 포수 역할을 해냈다.

나흘 간 두 차례 '포수 강백호'가 등장하면서, 강백호의 보직 변경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강철 KT 감독도 '포수 강백호'에 대해 "긴장하지 않고 잘 하더라. 공을 잘 잡고 어깨도 좋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강백호는 서울고 시절 포수와 투수로 뛰어

유망주로 이름을 날렸다. 2018 KBO 신인드래프트에서도 2차 1라운드 1순위로 KT에 지명 받았다. 다만 프로 입단 뒤엔 타격 능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1투수와 외야수로 뛰었다.

지난해까지 포수로 교체 투입된 경기는 2차례 있었다. 하지만 당시엔 엔트리에 든 포수를 모두 소진하면서 불가피하게 고교시절 포수 경험이 있는 강백호를 투입한 것이었다.

올해는 이런 상황이 아닌 데도 이 감독은 두 차례나 강백호를 포수로 썼다. 구단이 강백호의 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로봇 심판'으로 불리는 자동 투구 판정시스템(ABS)의 도입은 강백호의 포지션 전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공의 궤적을 측정해 스트라이크를 판정하는 ABS가 올 시즌 도입되면서 포수가 기술적인 포구로 볼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게 하는 프레이밍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이 감독도 시범경기 기간 "프레이밍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제 볼로킹과 송구를 잘하는 포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스

## 이정후, MLB 데뷔 첫 무출루...오타니, 마수걸이 홈런

### 시즌 타율 0.250으로 하락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26)가 무안타로 침묵했다.

이정후는 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와 의 원정경기'에 중견수 겸 1번타자로 선발출전, 4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데뷔 첫 경기부터 6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던 이정후는 이날 안타를 치는 데 실패했다. 시즌 타율은 0.250으로 낮아졌고 출루율도 0.303으로 떨어졌다.

이정후는 1회초 첫 타석에서 다저스 선발 타일러 글래스노우의 초구에 유격수 뜯공으로 아웃됐다. 95.8마일(154km)짜리 직구를 공략했으나, 배트 중심에 맞지 못했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글래스노우의 강속구에 마허 투수 팡볼로 물러났고, 6회 선두타자로 등장해 글래스노우를 상대로 2루수 팡볼로 돌아섰다. 8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3루수 팡볼로 아웃됐다.

샌프란시스코는 4-5로 패했다. 4연패의 수렁에 빠진 샌프란시스코(2승 5패)는 내셔널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2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미프로야구(MLB) LA 다저스와 경기 5회 초 좌익수 뜯공 아웃되고 있다. 이정후는 5타수 1안타 2삼진을 기록했고 팀은 4-5로 패했다.

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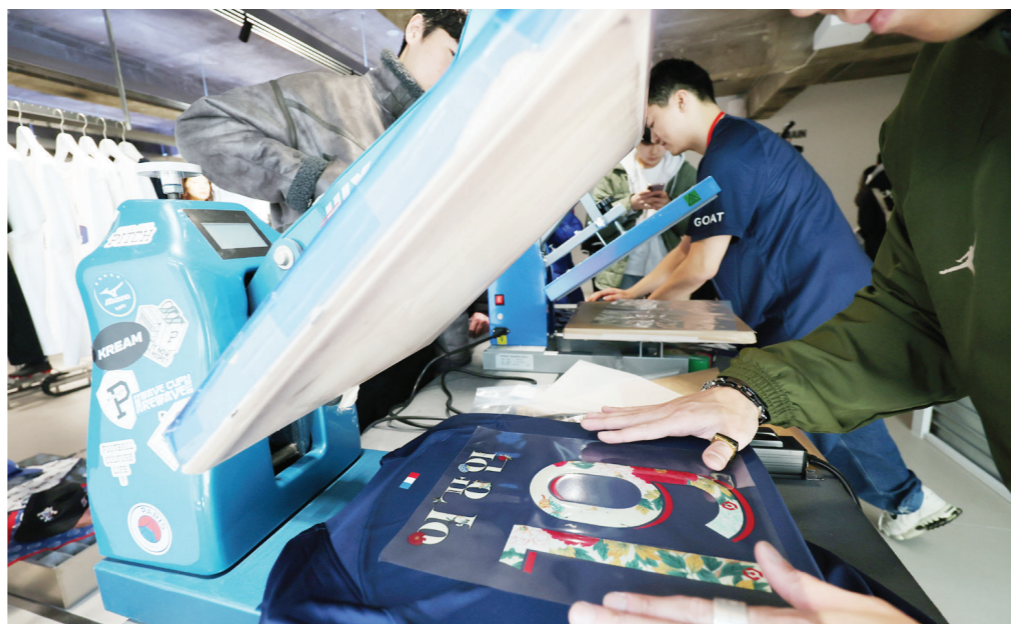
한편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는 2번 지명타자로 출전, 시즌 1호 솔로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

안타 1타점 2득점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세 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한 오타니는 시즌 타율을 0.270으로 끌어올렸다.

## "이강인, 음바페 제치고 PSG 유니폼 판매 1위" 英매체

### PSG 홈구장 투어 나선 한국 팬 300% 증가



1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마련된 파리생제르맹(PSG)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를 찾은 시민들이 이강인 한글 유니폼을 구매하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이 소속팀 동료인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생제르맹(PSG)의 간판 스타인 킬리안 음바페를 제치고 구단

유니폼 판매 1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4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더선은 이강인의 유니폼이 PSG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전했다.

다.

이 매체는 "PSG에는 음바페를 비롯해 우스만 데멜레, 아치라프 하킴 등 스타가 많지만 가장 많은 구매자를 끌어들이는 선수는 한국 대표 선수인 이강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한국에서 엄청난 팬을 보유하고 있다. 손흥민(토트넘)과 함께 한국 대표팀의 간판 선수"라고 덧붙였다.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는 대부분 아시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팬들의 PSG 유니폼 판매가 급증했는데, PSG의 경기를 보기 위해 홈구장인 파르크 데 프랭스를 찾는 한국 팬들도 20% 이상 증가했다.

또 스타디움 투어에 나선 한국 팬들은 무려 300% 증가했다.

PSG도 이강인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시즌에만 두 차례 한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다.

최근에는 서울에 3층짜리 플래그십 구단 매장을 개점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 PSG에 입단한 이강인은 팀의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 중이다.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공식전 4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